

“家禽의 날” 정해 養鷄產業 발전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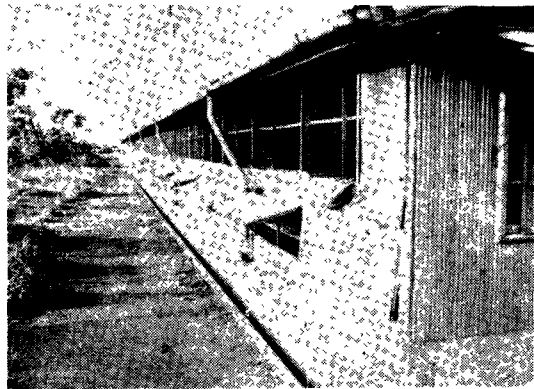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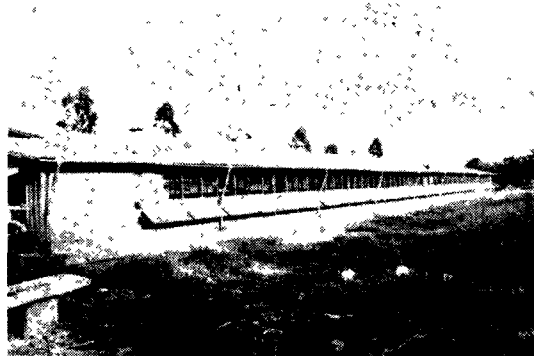
I. 서론

대만은 중국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국토면적이 35,570km²으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전체면적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1,450만 정도로서 대만은 위치상으로 보아 북위 23도에서 25도 사이에 있는 기후 온화한 아열대에 속하는 나라이다.

대만은 1945년 세계 2차대전이 끝날 때 까지 약 40여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처로서 주로 농업개발사업에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어 왔다. 그후 일본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얼마되지 않아 1949년 중국본토의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이동한 후 대만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다

자유중국(대만정부)은 그간 5차에 걸친 4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식량증산은 물론 공업화에 따른 국민경제가 윤택하여 저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

대만의 축산을 살펴보면 역우는 약 105,000두를 보유하며 돼지의 사육두수는 380만두 치란계 1,000만수, 부로이라의 연간 생산량은 5,500만수가 되며, 오리는 육계용이 1,200만수, 채란용이 570만수나 된다. 대만의 중요한 육류공급원은 돼지고기이며 다음이 닭고기외 오리고기이다. 이 나라의 양돈산업은 세계적으로 선진국 서양기술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으며 요즘에는 종돈개량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축산업의 특수분야가 크



上面二圖
• 東盈林口農牧場育雛舍外景



게 발전하는 데는 이 나라 기후조건과 농업여건의 유리성도 찾아볼 수 있으나 돼지고기의 다양한 요리방법과 기호에 있다고 보겠다.

II. 대만의 양계현황

대만의 양계산업은 1970년대에 국민 소득의 증대와 저렴한 양계산물의 공급으로 급격히 소비증대 현상이 일어나 1971년의 가금사육수수는 오리와 닭을 합하여 50,778,000수를 기록하였으나 1973년 유향파동과 사료곡물의 국제적 폭귀현상으로 가금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대부분의 크고 작은 양계업은 도산하고 1974년말 통계에 의하면 오리와 닭을 합한 사육수수는 18,399,861수로 격감하였다 그 후 다시 사료곡물의 국제시세가 호전됨에 따라 사육수수는 점차로 증가하여 현재 가금사육수수는 2,200만수에 달하며 육용계와 육용오리 등 육계사육수수는 연간 6,200만수에 달하고 있다.

1. 품 종

대만에서 사육되고 있는 품종은 크게 분류하여 재래종과 수입계로 나누어지며 재래 종은 주로 갈색란을 생산하는 갈색계와 흑색계로 대별할 수 있다. 갈색계는 난용과 고기용의 겸용종계통이며 동남아 국민의 일반적인 기호와 같이 갈색란을 먹는 관례로 시장가격은 재래종과 같이 55g미만의 진한 갈색 난각을 가진 알값은 백색란에 비하여 보통 알 1개당 2~3원을 더 받고 있다 그리고 재래종 닭은 같은 무게의 부로이라 품종에 비하여 kg당 1.5배 정도를 더 받고 있어 농가양계는 흑색계통과 갈색우모를 가진 새래종을 즐겨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입계는 미국의 하이라인, 세이버, 디칼브, 비브록, 닉척 등을 비롯하여 화란의 하이섹스, 영국의 로스, 일본의 농림 101호, 이시이 등 산란계통 11종의 G. P. S. 또는 P. S가 수입되고 있다 연간 종계수입량은 채란용 계통이 242,173수(1976년말 현재)이며 이중 세이버가 39%, 비브록 31%, 하이섹스 12.5%, 하이라인 8.1%를 점유하고 있다

육용계 수입종으로는 필취, 하이바드, 아바에이카, 하이부로, 안다손 등 18계통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만산 육용계도 약 2계통이 있으며 1976년말 종계수입 통계를 보면 765,529수가 수입되었고 이중 종계수입 비율로 보아 하이바드 56.4%, 하이부로 13.5%, 로스 6.3%, 필취 6.0% 등으로 되어 있다

오리의 품종은 난육겸용종인 케킹종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덴마크로부터 케킹종 종압을 수입하고 있다 난용종으로서는 카아기·캠벨종을 사육하며 농가에서는 이들 2품종의 교잡종도 많이 기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달걀 못지 않게 오리알도 즐겨 먹기 때문에 시장성이 좋으며 한편으로는 오리의 부로이라를 사육하여 10주령에 2kg의 생체중으로서 오리 고기용 "부로이라" 또는 "후라이어"로 시판되고 있어서 오리고기도 시장성이 좋다

대만의 종계사업은 1970년대의 한국의 종계 부화사업실정과 같이 외국종계의 판매 시장으로 되어있으며 세계각국에서 18개종의 계통이 수입되어 판매하고 있어 마치 외국 종계자의 시장과 같이 되어있다.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종계개량사업은 규모도 작고 연구에 착수한지도 얼마 안되어 대부분의 병아리는 수입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돈 개량사업은 괄목할만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틀이 되어 앞으로 종계개량 사업도 대만의 제당회사(台糖會社)에서 돼지 육종과 병행하여 닭육종에 착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양계경영 추세

대만의 양계경영 규모는 점차로 확대 되고 있으며 농가양계는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대신 전업 내지 기업양계 경영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전업인 경우 채란양계에 있어서는 평균 5,000~10,000수 규모이며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 부로이라 사육에 있어서는 내부분 전업이상의 양계가들이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사육 수수는 전체 수수에 대하여 불과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 전업

부로이라 사육농가의 규모는 50,000수 정도이며 크게 하는 농가는 50~60만수를 기르고 있다.

채란계의 경우 연간 수당평균 산란수는 220~230개 정도이며 부로이라의 경우 10주령 출하 체중이 약 2.0kg이고 사료효율은 2.2kg 정도인데 사료는 고열량, 고단백의 표준사 양을 하며 배합사료의 성분함량은 조단백질이 23%이고 대사에너지는 kg당 3,000칼로리 정도이다.

양계경영방식에 있어서는 이나라 기후조건이 온화하고 습기가 많아 채란양계에 있어서는 “케이저”사육이 대부분이며 부로이라는 소규모인 경우 빠다리 사육이고 대규모인 경우는 거의 평사사육을 하고 있다.

3.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

대만 양계협회 통계에¹⁾의하면 1일부로이라(2kg 생체중) 출하량은 10만수 정도이며 계란생산량은 380만개 정도로서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연간 107개 정도이며 닭고기 소비량은 4.5kg이다.

1977년 2월 현재 대만의 배합사료는 초생추 배합사료인 경우 kg당 100원이며(톤당, U. S. \$ 180.00)이고 부로이라 사료는 kg당 125원(톤당 U. S. \$ 250.00)이다.

알값은 계란 600g당 50센트로서 계란 대란~특란 1개당 25원이며 부로이라는 생체중 kg당 500원 정도이다. 대만의 양계사업도 “애그 사이클”에 따라 주기적인 생산과잉으로 불황이 오고 있으며 현명한 경영자만이 생존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4. 대만의 양계협회 활동

대만의 양계협회는 1963년에 창립 되었으며 매년 7월 1일은 “가금의 날”(家禽日)로 정하여 갖가지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다. 협회 본회원은 700명이며 지부회원이 300명으로 도합 1,000명의 협회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체이다. 協會長은 謝錦達氏이다.

협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양계업자의 친목과 권익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家禽의 날”을 기하여 제란과 닭고기 오리고기 등이 대대적인 소비선전을 하며 전시회를 가진다. 협회사업으로서는 난가와 닭고기 값의 안정을 위한 생산조절 사업과 소비 촉진및 선전사업, 수출촉진사업, 사양기술과 질병의 방역대책에 관한 강습회, 사료의 원료 확보와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그리고 대정부 건의사항제출 등을 벌이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양계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나 협회의 기구나 조직, 그리고 협회사업의 전개 내지는 추진사업은 우리나라보다 활발치 못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아직 대만에서는 닭의 경제능력 검정사업이나 종계의 자질개량과 초생추의 자질향상을 위한 부화장과 종계의 등록사업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지도 잡지나 시세속보 등도 발간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금년 2월 22일에 대만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대만 양계협회 회장으로 계셨고 현재 대만 가축약품협회 회장으로 있는 汪國恩先生을 만나 환담할 기회와 汪先生이 경영하는 養鷄農場을 구경할 기회를 가졌다. 汪先生은 한국에도 2~3차 본일이 있으며 양계인으로서 대만에 가면 꼭 한번씩은 만나 보아야 할 분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양계인의 한사람이다. 특히 한국과는 반공 이념을 같이 하는 우방국이며 세계에 친구가 많으나 그중에서도 자기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친한과에 속하는 중국인의 한사람이기도 하다.

사업으로는 가축약품, 사료, 종계, 종압, 종돈수입 등을 비롯하며 또한 축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종계장은 대북교외에 위치하며 제 1, 제 2 농장을 가지고 대지 30,000평에 하이섹스 P.S 50,000수, 하이부로 P. S. 30,000수와 채란계 50,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汪先生이 전망하는 대만 양계산업은 생산조절없이 불황을 모면할 길이 없을 정도로 팽창되어 있으며 초생추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